HRD동향

Human Resource Development

3 국민의 행복을 이루는 힘 HRD로부터

2019 March Vol.36

정책동향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발표

「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현장동향

2019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과정 선정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크게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 일학습병행 우수기업 방문

2019년부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상시 모집

직업훈련기관 종사자 유용 지침서 '부정훈련 사례집' 발간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훈련교사 양성과정' 운영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현장에서 명품자격으로 인식 확산

HRD통계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연구동향

통일대비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사례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우리가 꿈꾸는 포용국가 실현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사람의 도전과 혁신으로 이끄는 혁신성장,

인적자원개발이 이뤄냅니다.

CONTENTS

정책동향

4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발표
7 「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8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10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

현장동향

11 2019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과정 선정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1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크게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 일학습병행 우수기업 방문
13 2019년부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상시 모집
코리아텍 '1회 일학습병행대학' 졸업식 개최
14 직업훈련기관 종사자 유용 지침서 '부정훈련 사례집' 발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단 담금질 돌입
15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훈련교사 양성과정' 운영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현장에서 명품자격으로 인식 확산
16 사내 자격으로 근로자 역량 UP! 회사 경쟁력도 UP!
한국직업자격학회-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학술대회 개최
17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HRD통계

18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연구동향

20 통일대비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사례연구
21 중소기업 청년고용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고령화와 고용정책

기관동향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2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over story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하는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

국민의 행복을 이루는 힘, HRD로부터

통권 제136호
발행일 2019년 3월 8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전화번호 052-714-8323
구독신청 및 문의 keh4785@hrdkorea.or.kr
디자인·인쇄 승일미디어그룹

국민의 행복을 이루는 힘 HRD동향을 위한 의견을 구합니다.

월간 HRD동향은 2016년 4월호(창간호)를 시작으로 2019년 2월호까지 통권 35호를 통해 독자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더 유용한 콘텐츠, 더 알찬 정보로 구성하기 위하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구합니다.
▲디자인 ▲테마, 특집에 관한 내용 ▲HRD칼럼 ▲정책/현장/연구동향 콘텐츠 구성 및 내용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만족도
▲기타 바라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의견주실 곳
• **Email :** keh4785@hrdkorea.or.kr
• **전화 :** 052-714-8323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발표

: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보장 (2019년 2월 19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모두발언 중(2.19) –

- 정부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
-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그 간의 정책 성과를 토대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밝힘

| 삶의 영역 |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❶ 돌봄: 가정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돌봄 기능을 국가가 함께 책임짐

-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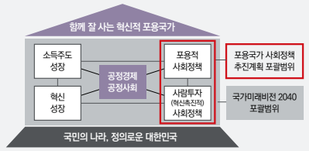
❷ 배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역량 개발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수업료 및 장학금 지원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 양성

주요과제	성과지표	2018년	2022년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 혁신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 현장실무능력중심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강화 • BK21 사업 개편 •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 성장 지원	고교학점제 확대*	105개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직업계고 (전면 실시) 일반고(부분 도입)
	직업계고 학과개편 수 (신산업·유망산업·지역특화산업 등 분야)	98개	500개(누적)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1만 7천 명	87,500명(누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	–	실무 및 고급인재 4만 명(누적)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 발전전략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임기 내 추진할 사회분야 정책 로드맵(교육부 총괄)이며, 「국가미래비전 2040」은 정치·경제·사회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책기획위원회 중심으로 수립 중('19.9월)

| 고교학점제 확대 |

직업계고: '22년 학점제 전면 실시
일반고: '20년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학점제를 반영하여 개정 완료하고, '22년 제도 부분 도입 가능

| 혁신성장 선도 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양성 |

2018년: BK21플러스사업 | 미래기반 창의인재 등 3개분야, 1만 7천 명
2022년: BK21후속사업(안) | 혁신성장 선도형 등 연간 1만 8천 명 양성
(연 1만 7천 명 × 2.5년 + 연 1만 8천 명 × 2.5년, '18.1~'22.12 누적)

|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 양성 |

AI, 빅데이터 분야 등 8개 분야에서 혁신적 실무교육 과정 신설·운영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인공지능 대학원 등 고급 교육 과정 지원

– 모든 성인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주요과제	성과지표	2018년	2022년
• 학점은행제, K-MOOC 등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 포용적 직업훈련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평생학습참여율	('17) 35.8%	42.8% (OECD평균)
	고졸이하 청년 직업훈련 참여율*	('17) 24.7%	26%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18) 7.9%	14%

❸ 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질 좋은 민생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터의 혁신 구현

–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늘리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주요과제	성과지표	2018년	2022년
•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강화	남성육아휴직 비율*	17.8% (17,662명)	20% (23,210명)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수	6,606명	10,696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3,820명	5,807명
	30대 여성 고용률	60.7%	62%

–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 확대
– 기업문화 개선, 일터에서의 학습기회 확대
– 민생 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❹ 쉼: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근로자 휴가 지원 등
– 동네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❺ 노후: 노인세대 부양을 가족과 정부가 함께 하며, 은퇴 이후 주체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애전환기 준비에 대한 지원 확대

– 신중년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확대, 노인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 등

주요과제	성과지표	2018년	2022년
•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대 •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 확대 및 급여수준 향상 • 노인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전국 확대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참여자 수	2.8만	5만
	노인 직접일자리 수	54만	80만
	공익활동 수당	월 27만 원	월 40만 원
	노인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실 운영	655개 (문화 100개, 체육 555개)	800개 (문화 130개, 체육 670개)

–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및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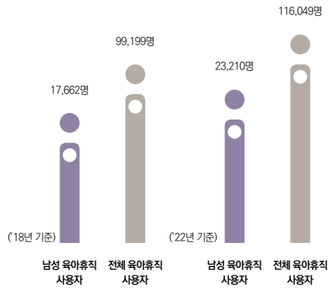
| 고졸이하 청년 직업훈련 참여율 |

실업자 훈련 참여자 중 고졸 이하 비율

|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자체훈련 참여인원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인원

| 남성육아휴직 비율 |



| 생활 기반 |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❶ 소득: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기초소득 보장제도 확대
- 한국형실업부조 도입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 등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등

❷ 환경·안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안전 시스템 구축
- 미세먼지 감축 대책 추진, 노후경유차 감축 등 쾌적한 환경 조성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사고, 산재, 자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사고 예방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보호 확대 및 안전체감도 제고 등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한 사회 구축

❸ 건강: 국민이 경험하는 의료비 수준을 낮추고, 사는 곳 근처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❹ 주거·지역: 국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쇠퇴하는 구도심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마련
-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복지 환경 마련
- 돌봄·교육·건강 등 기초생활인프라 대폭 확대
-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농어촌에 대한 기본 생활서비스 지원 확대

향후계획

- **재원조달**
  - 중기재정계획('19~'23)과 연계하여 기재부, 관련 부처와 예산 협의 후 재원대책 확정·발표
- **과제관리**
  -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
- **전략회의**
  - 포용국가전략회의 개최('19.4, '19.9)
  - 혁신적 포용국가 추진계획 주요 과제 및 국가미래비전 2040 수립·발표

|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

생애주기

노후
치매 부담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노인 4명 중 1명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돌봄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1만 7천 명은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게됩니다.

배움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됩니다. 혁신인재 12만 7천 명이 양성됩니다.

일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혜자가 4배 늘어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34만개 늘어납니다.

쉼
연간 노동시간이 1,89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가 10만 명으로늘어납니다.

생활기반

소득
한국형 실업부조로 근로빈곤층 50만 생계가 보장됩니다. 만 7세 미만 모든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환경·안전
미세먼지 환경이 개선됩니다.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기 시간이 당일로 단축됩니다.

건강
비급여 의료비 부담액의 2/3가 줄어듭니다. 저소득층 의료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주거·지역
모든 신혼부부가 주거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모든 읍·면·동에 1개소 이상 문화체육시설이 설치됩니다.

「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투자 계획 (2019년 1월 31일, 기획재정부)

- 2019년도 나라살림은 (1)일자리 창출, (2)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3)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4)국민의 삶의 질 개선, (5)안심사회 구현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5가지 방향에 중점을 둠
- 중점 추진과제 중 '직업훈련 강화' 재정운용 방향
  -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강화

구분	주요내용	2018년	2019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 확대	신산업 분야(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등) 핵심인재 양성	1,000명	1,300명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 및 하이테크 훈련과정 확대	신기술·신산업 분야 학과 비중 확대	7%	9%
	하이테크 훈련과정 확대	545명	775명
중소기업 노동자 대상 고급훈련 확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우대	NCS 지원 단가 100%	300%
	고급훈련 확대	29천 명	33천 명

  - 재직자 직업훈련의 사각지대 해소

구분	주요내용	2018년	2019년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확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대상 내일배움카드 발급 지원	-	10.3만 명
내일배움카드 지원방식 개편	대기업 근로자 중 일정소득이상(소득 상위 50% 이하)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발급하여 원활한 이전직 지원	47만 명	52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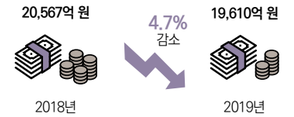
  -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구분	주요내용	2018년	2019년
고졸 청년들의 선취업·후진학 활동 활성화 지원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 교육 이수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금 지급	-	1인 300만 원, 2.55만 명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자들이 일정기간(3년 이상) 재직후 대학에 후진학 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	학기당 평균 320만 원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지원 신설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중점을 두는 대학 15개교 신규 선발	-	교당 10억 원 지원
후진학 전담과정 운영 확대 및 고숙련 일학습병행제 지원 확대	대학 내 후진학 전담과정 (주말·야간반 등) 지원 확대	12교	20교, 전문대 지원 신설 6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이 신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숙련 일학습병행 지원	20개소	3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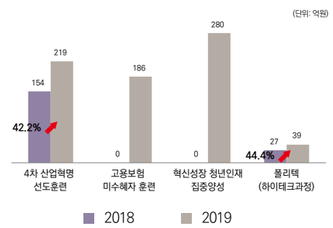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 재정지원 투자방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신기술·고숙련 직업훈련 중심을 재편하고, 기존 직업훈련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 예산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 주요 변동내역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 (2019년 1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계고 혁신을 통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

■ 비전 및 목표

비전

"고교졸업 ▶ 대학진학" 일변도에서 벗어난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 구현

목표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 ('22년 까지)

- **학생** | 원하는 시기에 언제나 직업교육을 받고, 고졸로 충분히 사회적으로 자립·성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업** | 인성·기초능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고졸 인재 채용
- **지역** | 지역공동체(커뮤니티) 중심의 양질의 교육 – 취업 활성화

과제 목표	미래직업능력과 기초소양을 겸비한 고졸 인재 육성	고졸 채용 붐 사회 전반으로 확산	고졸 성공 사회적 경로 정착
주요 과제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강화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강화	**취업 후**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
	• 직업계고 체질 개선 추진 • 학생중심의 중등직업 교육체제 구축 • 중등직업교육 기회실질적 보장 • 상생·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생태계 조성 • 중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 기업의 고졸 채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지역 일자리 및 해외 일자리 취업 지원 강화 • 고졸 취업지원 체계 강화 • 중소기업근무여건 및 대국민 인식 개선	• 자산형성 지원 확대 • 고졸 근로자 역량개발 지원 기업 확대 • 고졸 재직자 대학진학 지원 강화
성과 창출	• 고졸취업 및 고졸취업자 지원 내용을 범정부적 국정과제로 추진 • 고졸취업 확대 방안 과제 추진·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상황 정기 점검		

추진배경

미래 신산업 →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 자립 지원을 통해 고졸 후 취업해도 사회적으로 자립·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및 문재인정부 사람 중심 포용 성장 뒷받침

교육
기술전문가로 성공하고자 하는 학생의 꿈 실현

사회
입시과열과 과잉학력 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경감

경제
청년일자리 구조적 미스매치 해소
(우수 고졸인재 육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 新산업분야 육성에 필수)

주요 내용

- 신산업·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개편으로 직업계고 체질개선
- 지역사회·지역산업과 상생·협력하는 직업계고 생태계 구축
-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취업지원관 배치하여 취업지원 강화
- 공공 및 민간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하여 고졸채용 확산
-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경로 다양화로 능력개발 기회 확대

| 미래 신산업 |

미래형자동차, 항공드론, AR/VR (융합 신산업) 핀테크, U-Health 등

| 취업 전 | 중등직업교육 강화

❶ 직업계고 체질 개선 추진

– 산업맞춤 학과개편: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학과 개편 추진('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 '22년까지 약 500개(전체의 25%) 학과

❷ 학생 중심의 중등직업교육체제 구축

–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학생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계고에 학점제 우선 도입('20년, 마이스터고 → '22년, 전체 직업계고)

※ '25년부터 전체 고교 1학년에 고교학점제 본격 적용

❸ 상생·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생태계 구축

– 지역상생모델 도입: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도입·운영('19, 5개교 → '22, 50개교)

– 지역명장 활용: 지역 명장을 교수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기술전수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교내 명장공방*을 확대('18, 23개교 → '22, 60개교)

– 정부부처 연계 직업계고 확대: 각 정부부처 소관 분야별 핵심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18년, 287개교 → '22년, 347개교)

– 도제학교 내실화: 교육부·노동부 협업을 통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재선정시 우수학교 및 4차산업 유망분야 관련학과 우선 선정

| 명장공방 |

명장의 작업장, 작품 전시장, 학생을 위한 교육실습장 및 사업장 등으로 활용

| 취업 시 |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❶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❷ 기업의 고졸 채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인증제 도입: 능력중심 고졸채용,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 등을 고려,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신설('19년)

※ 현행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분야를 '대기업', '중소기업' 2개 분야에서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을 추가한 3개 분야로 개편

|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인원 단계적 확대
('18년, 7.1% → '22년, 20%)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 단계적 확대
('18년, 20% → '22년, 30%)
공공기관: 공공 기관 고졸채용 확대 추진 및 공공 기관별 채용 목표제 도입
('18년, 8.5% → '19년, 9.0% 내외)

❸ 지역 일자리 및 해외 일자리 취업 지원 강화

– 해외 취업 지원: 직업계고에 국제통용 자격 취득 등 해외 현지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 현지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 프로그램 |

국제통용 자격(IT, 용접, 해기사 등), 新산업환경(4차 산업혁명, ICT 등), 한류(뷰티, 조리 등) 등
('19년, 50명 → '22년, 200명)

| 취업 후 |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

❶ 자산형성 지원 확대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8, 1인당 300만 원, 24,000명 → '19, 25,500명 → 단계적 확대)

* 직업교육을 받은 직업계고 및 일반고 위탁과정(1년) 학생 선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고졸 재직자가 대학 진학시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유급휴가 훈련 지원 |

기간: 1개월~2년
규모: 훈련비·인건비(최저임금 150%), 대체인력 인건비(최저임금 100%)

❷ 고졸 근로자 역량개발 지원 기업 확대

–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활성화: 중소기업 고졸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최대 2년) 역량개발을 위한 유급휴가 훈련 지원*('18년~)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중소·중견기업 3년이상 고졸재직자가 대학 진학시 등록금 전액 지원

❸ 고졸 재직자 대학진학(후진학) 지원 강화

– 학비 지원: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통해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진학 시 학비 전액*을 지원

– 전문대: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을 신설,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및 지역 내 산업체 근로자 맞춤형 후진학 경로 제공('19년 15개교 선정)

– 대학의 평생학습체제 지원 사업 대상을 전문대학으로 확대('19년 6개교)

– P-TECH*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고졸재직자의 직무능력심화 및 후학습 지원('18년 13개 → '19년 23개)

|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

수요 맞춤형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유연화, 지자체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재직자 교육 등('19, 15개교, 교당 10억 원 지원)

| P-TECH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자 대상으로 융합형·신기술 등 훈련 지원(전문대 수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

: 노·사 상생협약 준수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패키지 지원 (2019년 2월 21일,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2월 21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
-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상생형 지역일자리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①지역 경제주체 간(노·사·민·정) ②상생협약을 체결하여 ③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 하면서 ④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기본원칙

① 지역이 주도하는 창의적 일자리 창출 모델 유도
②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 필수
③ 지자체·중앙정부가 함께 맞춤형 패키지 지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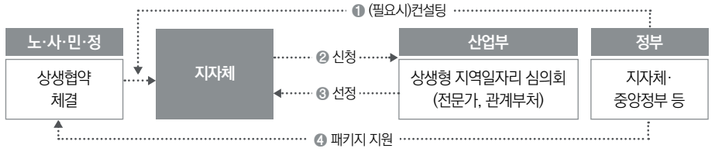
■ 패키지 지원: 상생협약 내용에 따라 적합한 지원책을 조합하여 패키지로 지원함

| 지자체·중앙정부 패키지 지원 주요내용 | (밑줄은 법 개정사항)

구분	지자체	중앙정부
기업	• 재정사업 투자보조금 (투자규모 일부 보조, 예: 10%) •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5→1%), 수의계약 허용 • 관내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 • 부동산 취득세 50% 이상 감면·재산세 75% 감면(5년)	•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 할인 (年 임대료 인하: 조성원가 3→1%) • 펀드지원, 中企 전용자금 마련, 우대보증 공급(보증료율 감면 등)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가산 (+3~10%p) 및 한도 상향 • 국유지 대부요율 인하(5→1%), 장기임대(최대 50년), 수의계약 •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법인세 감면
근로자	•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동지원 •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예: 3년형 3,000만 원(청년600, 기업600, 정부 1,800 + 지자체 추가 지원금)	•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확대,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우대 지원 • 산단 기숙사·통근버스 지원(3년) • 복합문화센터(문화·복지·편의 기능) 등 산단내 편의시설 확충 • 지역 직업계고·전문대 상생형 기업 맞춤형 교육 •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기업의 재직자 숙련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훈련비 지원

■ 지원절차

노·사·민·정 협약 → 지자체 신청 → 중앙 심사·선정 → 패키지 지원



2019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과정 선정

2019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노동부는 2월 1일, 2019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14개 훈련기관(18개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는 훈련규모를 1,300명으로 늘리고, 우수한 훈련기관에 대해 연간 1회 운영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2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회차도 확대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부산대, 한밭대, 멀티캠퍼스, 휴넷 등이며, 빅데이터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 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훈련기관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훈련과정 관련 기초지식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기관별로 필기시험, 면접전형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훈련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생은 훈련기관에 참여 신청 후 선발절차를 거쳐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으면 된다.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3~10개월에 걸쳐 진행될 훈련의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게 되고, 훈련을 이수하면 각 훈련기관의 협약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지원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2월 중 훈련생 모집을 시작하여 빠르면 3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게 되며, 자세한 일정은 직업능력개발정보망(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 **목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기술·고숙련 인력양성·공급을 위한 융합형 고급훈련과정* 운영
*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 핀테크, 실감형콘텐츠(AR, VR) 등 신산업분야에 필요한 훈련과정

• **대상**
대학졸업예정자 등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

• **특징**
산업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고급훈련과정을 설계·운영, 복합문제 해결역량을 습득·향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훈련 방식 적용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19년 3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이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자리 환경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현주소를 짚어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자리 창출 지원 역할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국회와 학계 등 여러 전문가가 모여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는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일자리 환경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현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두 번째는 강순희 경기대학교 교수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자리 창출 지원 역할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우영 교수가 발표내용을 정리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 인력공단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 게시글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dhkim@hrdkorea.or.kr) 제출하면 된다.

국회토론회 참가 신청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크게 확대

2019년 2월 22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의 대상직무를 기존 「한국고용직업분류」의 74개 직무에서 213개 직무로 늘리고, 지원 예산도 '18년 86억 원에서 27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 보다 빨리 재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를 찾아내고 지원함으로써 신중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신중년이 도전할 수 있는 직무, ▲직업훈련 등을 받아 신중년이 다시 진입하기 쉬운 직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의 확대로 신중년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꾸준히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 **개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수상자 혜택**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 원, 중견기업 40만 원(최대 1년)으로 사업장 직전 보험년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무기계약직),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고용노동부 장관, 일학습병행 우수기업 방문

2019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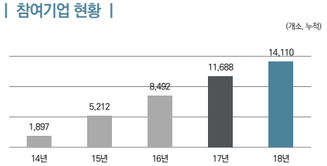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5일, 일학습병행 우수기업인 ㈜씨엔이지에스(대표 이래진, 경기 안양 소재)를 방문하여 회사 대표,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방문은 일학습병행이 새로운 현장중심의 직업훈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장의 경험이 중요한 소방시설 공사업체인 ㈜씨엔이지에스는 전문기술인력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을 도입하여 '19년 2월까지 6명의 근로자가 수료하고 14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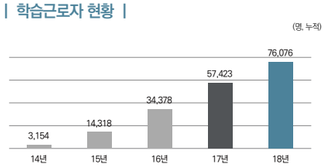
일학습병행은 이론 교육훈련과 현장실무를 잇는 현장기반 훈련으로, 참여 기업 설문조사 결과(20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월등히 향상(숙련근로자 대비 훈련 전 48.5%→훈련 후 81.2%)되는 등 눈에 띄는 훈련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일학습병행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문대 단계, P-Tech 과정도 늘렸고, 훈련품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우수기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여기업 현황 |



| 학습근로자 현황 |



2019년부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상시 모집

2019년 2월 11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선정 방식을 정기공모 방식에서 연중 상시모집으로 개편하고 기업 선정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연 4회 정기공모 방식을 상시모집으로 변경하여, 참여 희망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을 실시하고 현장실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최종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또한, 학습기업 참여제한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의 임금체불, 산재발생 공표사업장 등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참여제한 외에 연소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업장의 참여도 제한하여 직업훈련을 제공할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일하기 좋은 기업'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참여기업 선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훈련역량을 갖춘 좋은 기업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일학습병행, 제도시행 5년 만에
1만 3천여 개 기업과
7만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발전"

코리아텍 '1회 일학습병행대학' 졸업식 개최

2019년 2월 20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코리아텍(총장 직무대행 오용택)에서 개최된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에는 2015년 신설된 일학습병행대학 첫 입학생 '기전융합공학과' 졸업생 14명이 탄생한다. 일학습병행대학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습을 통해 학위와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교육과정이다.

코리아텍은 정부의 일학습병행제 사업의 성공적 추진, 확산을 위한 한국형 표준 모델 선도를 위해 일학습병행대학을 운영해 왔다. 학부과정은 2016년에는 기계설계공학과, 강소기업경영학과를 신설했으며, 석사과정(고숙련마이스터과정)으로는 2개 학과(기계설비제어공학과, 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강기호 일학습병행대학 학장은 "코리아텍 일학습병행대학은 뛰어난 연구역량과 풍부한 산업현장 경험을 겸비한 교수진과 고품질 행정지원으로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거꾸로 학습), 기업전담 지도교수의 고품질 현장훈련(OJT) 등을 통해 현장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균형있게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실력중심사회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업훈련기관 종사자 유용 지침서 '부정훈련 사례집' 발간

2019년 2월 20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코리아텍(총장 직무대행 오용택)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문수)은 직업훈련 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정훈련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훈련 사례집 vol.2'를 발간했다.

부정훈련이란 직업훈련기관이 정부에서 인정받은 국비지원 훈련 내용과 다른 훈련을 실시하거나 출결 사항을 조작하는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017년 5월 발간자료에 이은 개정판으로, 실제 부정훈련 점검 사례 중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40건을 만화 형식의 스토리텔링으로 그려내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더불어 각 사례마다 올바른 직업훈련 실시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부정훈련 관련 FAQ,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 등도 부록으로 덧붙였다.

이문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장 및 훈련 교·강사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정훈련 사례집

* 경로: '부정훈련 사례집 vol.2'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공지사항에서 무료로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단 담금질 돌입

2019년 2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2월 16일, 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입소식을 갖고 6개월간의 담금질에 들어간다.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60여 개국, 1,600여 명의 선수들이 56개 직종에서 열띤 경쟁을 벌일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클라우드컴퓨팅 ▲수처리기술 ▲산업기계설비 ▲중장비정비 ▲조경 등 지난 대회보다 5개 직종, 5명이 늘어난 47개 직종, 52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행사에는 김동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을 비롯해 국가대표선수와 지도위원, 후원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선수단과 지도위원은 선서문을 통해 숙련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으며,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변경된 경기방식 공유와 강화훈련 성과 제고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입소식에 참가한 국가대표선수들은 대회가 끝난 뒤 아쉬움이 없도록 6개월 간 필승의 자세로 훈련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인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기능한국의 미래를 이끌 원동력인 국가대표선수들이 대회에서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리라 믿는다"며 "6개월의 훈련기간 동안 선수 및 지도위원의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제기능올림픽

- **개요**

회원국 청소년 간 기능교류를 통해 기능 수준 향상 및 기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50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 위원회(World Skills International)' 주최로 격년제로 개최

- **수상자혜택**

금·은·동메달 수상자에게 체육올림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 6,720만 원, 5,600만 원, 3,920만 원의 상금과 훈·포장을 수여하며,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병역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편입), 대회의 입상자가 동일분야 계속 종사 시 매년 계속 종사 장려금(5,050천 원~12,000천 원) 지급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훈련교사 양성과정' 운영

2019년 2월 25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원장 윤관식)은 신중년 은퇴(예정자)가 숙련기술을 활용해 직업 능력개발훈련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신중년 훈련교사 양성과정'을 3월부터 운영한다.

'신중년 훈련교사 양성과정'은 2월 25일(월)부터 총 8차에 걸쳐 총 500명을 모집해 내년 2월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만 50세 이상으로 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실무 및 교육훈련 경력)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은퇴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장애인, 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윤관식 능력개발교육원장은 "50~60대 대부분은 은퇴 후 생애 재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고도성장의 주역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수준 높은 역량의 재훈련을 통해 제2의 인생을 펼치도록 신중년 훈련교사 양성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접수 및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http://hrdi.koreatech.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중년 |

'5060세대'라고도 불리며,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등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 2017년 기준 1천 378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현장에서 명품자격으로 인식 확산

2019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는 '15년부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시행한 결과,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총 5,600명('15~'18년 누적)으로 5,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은 매년 약 30개씩 추가되어 '19년 현재 기계설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총 143개 종목이다. 또한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이 매년 증가하여 '19년에 376개 기관의 총 906개 과정이 지정되었고, 직업계고·대학 등 정규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군,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과정평가형 자격은 취업률, 직무 수행능력 등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며 산업현장에서 '일'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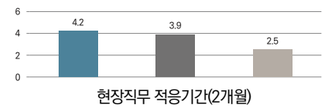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과정평가형 자격이 곧 명품(名品)자격이다'라는 기업의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개선하여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현황

연도	합계	'15년	'16년	'17년	'18년
취득자 수	5,600명	51명	671명	1,640명	3,2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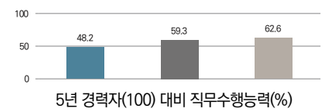
과정평가형 자격 성과분석

| 현장직무 적응기간 |



현장직무 적응기간(2개월)

| 5년 경력자 대비 직무수행능력 |



5년 경력자(100) 대비 직무수행능력(%)

■ 자격 취득자 ■ 검정형 취득자 ■ 과정형 취득자

* '18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2월)

사내 자격으로 근로자 역량 UP! 회사 경쟁력도 UP!

2019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월 27일, '사업 내 자격검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업 내 자격검정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대기업 3곳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3곳 등 총 6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이날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부문별 수상을 진행하였다. 대기업 부문 금상은 삼성중공업(주), 은상은 네트웍오앤에스(주), 동상은 (주)GS리테일에게, 우선지원 대상기업 부문 금상은 새한(주), 은상은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동상은 (주)키노콘에게 돌아갔다.

김동만 이사장은 "사업 내 자격이 근로자의 역량은 물론, 기업 생산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자사 근로자의 역량개발에 힘쓰는 풍토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내 자격검정사업은 2007년부터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79개 기업, 179개 종목이 사업 내 자격으로 인정돼 있다.

* 사업내 자격검정 :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자격으로, 관련 직종에 대해 일정한 검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

삼성중공업(주) 사업내 자격검정 담당자 **이승연 프로**

"자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 협력사 근로자도 함께 참여해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고, 협력사 또한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사업내 자격검정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박주한 사원** (스크러버(Scrubber) 3급 자격 취득)

"취급 장비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다보니 업무적 응력은 빨라지고 직무만족도는 높아졌고, 교육을 통해 개인의 역량향상은 물론, 함께 공부하는 사내 분위기가 형성돼 직원들끼리도 더욱 끈끈해졌다"

한국직업자격학회-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학술대회 개최

2019년 2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월 22일, '포용적 성장시대 직업능력개발 생태계'를 주제로 (사)한국직업자격학회(회장 박철우)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이 '기술변화와 포용적 성장: 전개방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인적자본투자를 통한 포용적 성장-일과 학습의 선순환체제 구축',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노동시장과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에는 강순희 경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나승일 서울대학교 교수,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우봉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 임창빈 교육부 평생미래 교육국 국장, 하헌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과장 등이 나섰다.

김동만 이사장은 "정부정책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과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육성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직업능력개발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2019년 2월 26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1월 아이엔테코(주) 김익진 대표, 2월 엠피닉스(주) 강상도 대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공작기계 제작 전문 기술인인 아이엔테코(주) 김익진 대표(만 64세)를 2019년 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마이크로 광학부품 제조 전문 기술인인 엠피닉스(주) 강상도 대표(만 41세)를 2019년 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였다.

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아이엔테코(주) 김익진 대표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는 신념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친환경, 저전력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인이다.

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엠피닉스(주) 강상도 대표는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이크로 렌즈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인이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의 실무 숙련기술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을 매월 한 명씩 선정·포상하는 제도. 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 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선정

| 이달의 기능한국인 소개 |

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아이엔테코(주) **김익진 대표** MINI INTERVIEW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는 신념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일과 공부를 함께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불가능해 보이던 친환경, 저전력 에너지 절감 기술의 국산화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으며 오늘날 제가 기능인으로, CEO로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유한 기술 및 경험을 저와 같이 기능인을 꿈꾸는 학생 및 직원에게 전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엠피닉스(주) **강상도 대표** MINI INTERVIEW

"저는 기술이 뛰어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선반을 전공한 후, 대학에서 금형설계와 기계공학을, 대학원에서 초정밀·금형설계를 전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운 기술을 분야가 다른 광학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광학설계 기술 등을 확보하였고, 이때 확보한 기술은 창업 이후 제가 마이크로렌즈 생산 기술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꿈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

통계청, 2019. 2월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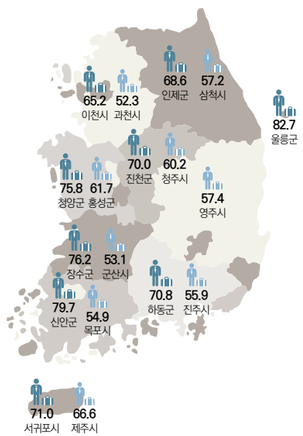
통계청

| 시 지역 및 군 지역의 고용 특성 |

	시 지역		군 지역	
	2018년 하반기	전년동기대비 증감	2018년 하반기	전년동기대비 증감
15세이상 인구	2,126만 8천 명	28만 2천 명 ↑	313만 3천 명	8천 명 ↓
경제활동 인구	1,323만 4천 명	47만 명 ↑	211만 3천 명	4만 5천 명 ↑
취업자	1,276만 9천 명	47만 명 ↑	208만 3천 명	5만 명 ↑
실업자	46만 5천 명	2만 명 ↑	3만 명	5천 명 ↓
비경제활동 인구	803만 4천 명	18만 9천 명 ↓	102만 명	5만 3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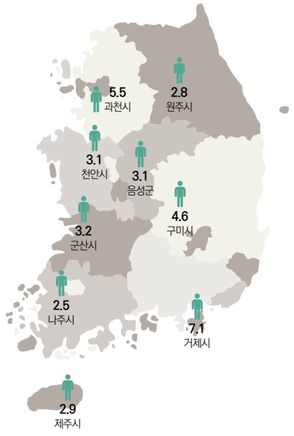
| 도별 고용률 상·하위 시군 |

*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x 100



| 도별 실업률 상위 시군 |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 인구 x 100



지역별고용조사

• 목적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 생산하여 제공

• 대상

전국 약 20만 1천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주기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 방법

면접 및 인터넷조사

주요용어

• 15세 이상 인구

2018년 10월 15일 현재 만 15세인 자

•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 취업자

①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동일 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③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❶ 고용률 및 취업자

- 2018년 하반기('18년 10월) 9개 도의 시 지역 고용률은 60.0%로 전년 동기 대비 1.3%p 상승하였고, 군 지역은 66.5%로 1.8%p 상승함
  - 군 지역의 고용률이 시 지역보다 6.5%p 높게 나타났음
    * 군 지역의 고용률이 시 지역에 비해 높은 이유는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의 농림어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취업자 중에서 고령층 및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임
- 시 지역의 취업자는 1,276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만 명(3.7%) 증가하였고, 군 지역은 208만 3천 명으로 5만 명(2.4%) 증가함

❷ 실업률 및 실업자

- 9개 도의 시 지역 실업률은 3.5%로 전년 동기와 같았고, 군 지역은 1.4%로 전년 동기 대비 0.3%p 하락하였음
  - 시 지역의 실업률이 군 지역보다 2.1%p 높게 나타났음
- 시 지역의 실업자는 46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명(4.5%) 이 증가하였고, 군 지역은 3만 명으로 5천 명(-14.6%) 감소

❸ 고용률 상·하위 지역

- 시 지역의 고용률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71.0%), 충남 당진시(69.9%), 경북 영천시(67.6%)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 과천시(52.3%), 전북 군산시(53.1%), 경기도 남양주시(54.5%) 등에서 낮게 나타났음
- 군 지역의 고용률은 경북 울릉군(82.7%), 전남 신안군(79.7%), 전북 장수군(76.2%)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 양평군(59.7%), 가평군(60.1%), 전북 완주군(60.7%) 등에서 낮게 나타남

❹ 실업률 상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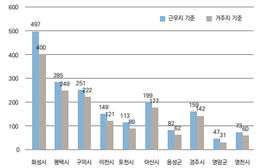
- 실업률은 경남 거제시(7.1%), 경남 통영시(6.0%), 경기도 과천시(5.5%) 등에서 높게 나타났음
- 도별 상위 지역을 보면 경남에서는 거제시(7.1%), 경기도에서는 과천시(5.5%), 경북에서는 구미시(4.6%) 등에서 높게 나타남

❺ 근무지 기준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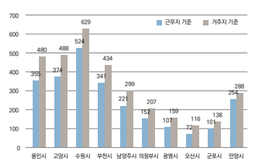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고용률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지역 간 취업자의 유입 및 유출 현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근무지(사업체 소재지)기준의 고용률도 산출

- 근무지 기준과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 차이 지역
  -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보다 많은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9만 6천 명), 평택시(3만 6천 명), 경북 구미시(2만 9천 명) 순으로 나타남 * 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 해당
  - 반면,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보다 적은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12만 5천 명), 고양시(-11만 4천 명), 수원시(-10만 4천 명) 순으로 나타났음

|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더 많은 지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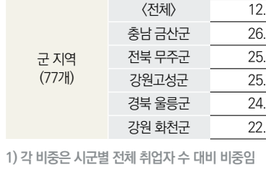


|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더 적은 지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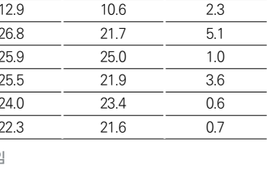


- 근무지 기준과 거주지 기준 고용률 차이 지역
  - 전남 영암군(32.1%p), 경북 성주군(26.0%p), 고령군(25.7%p) 순으로 근무지 기준 고용률이 거주지 기준보다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오산시(-24.2%p), 광명시(-18.8%p), 군포시(-15.5%p) 순으로 근무지 기준 고용률이 거주지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음 * 이 지역들은 주거 도시로서의 특성이 강함

| 근무지 기준 고용률이 더 높은 지역 |



| 근무지 기준 고용률이 더 낮은 지역 |



❻ 지역별 노동이동 특성

- 지난 1년간 이직 경험이 있는 취업자 비중은 시 지역(16.8%)이 군 지역(12.9%)보다 높게 나타남
- 시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29.3%), 부천시(28.9%) 등에서 지난 1년간 이직 경험이 있는 취업자 비중이 높고, 경기도 여주시(7.6%), 과천시(8.6%) 등에서 낮게 나타남
- 군 지역에서는 충남 금산군(26.8%), 전북 무주군(25.9%) 등에서 지난 1년간 이직 경험이 있는 취업자 비중이 높고, 경남 의령군(3.5%), 합천군(4.1%) 등에서 낮게 나타남

| 이직 취업자 비중 상위 지역 |

(단위: %)

구분	상위지역	비중[1]	1번	2번 이상
시 지역 (77개)	〈전체〉	16.8	13.7	3.1
	경기 시흥시	29.3	24.1	5.2
	경기 부천시	28.9	25.6	3.3
	충남 공주시	24.2	20.9	3.3
	강원 원주시	22.6	16.8	5.9
	전북 전주시	22.5	17.3	5.2
군 지역 (77개)	〈전체〉	12.9	10.6	2.3
	충남 금산군	26.8	21.7	5.1
	전북 무주군	25.9	25.0	1.0
	강원고성군	25.5	21.9	3.6
	경북 울릉군	24.0	23.4	0.6
	강원 화천군	22.3	21.6	0.7

1) 각 비중은 시군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임

통일대비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 연구자 : 강일규, 박종성, 허영준, 임정빈, 이천우

■ **목적**

- 북한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직업안정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북한지역 일자리 확보는 통일 비용 절감의 주요 수단으로, 통일대비 차원의 북한지역 주민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남북한의 직업능력개발 체계와 비교 및 협력영역
- 남한 및 독일의 직업능력개발 발전 사례 및 시사점
- 북한지역 주민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 방안
  -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운영, 고용서비스 제공의 구분 후 구체화 필요
  - 북한 경제수준 및 직업능력개발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남한의 북한주민 직업교육 훈련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노동에 대한 이해, 경제마인드 함양교육 필요
  - 북한지역의 고용센터와 전직지원센터 설치, 교육훈련 바우처 제도 도입,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사례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 연구자 : 김미란, 권현지, 노용진

■ **목적**

- 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인적자원 확보와 육성, 숙련개발을 둘러싼 제반여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훈련정책방향을 모색,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혁신형 중소기업 성장과정의 인적자원활용 역할과 기능
- 기술 및 제품혁신 과정에서의 핵심인력 확보, 혁신역량 육성·보전방법
- 기술변화에 따른 혁신형 중소기업의 숙련요건 변화,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
- 혁신형 중소기업 핵심인력 육성, 숙련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개선방안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생태계적 환경 조성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 육성 대비 기존 개발된 인력자원 활용
  -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인적자원 공급정책 강화

중소기업 청년고용의 현황과 과제

산업연구원, 2018 | 연구자 : 김주영

■ **목적**

- 한국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듦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타격이 받을 것으로 예상, 청년층 특히 중소기업 청년층에 대한 노동시장 대책이 절실함
- 청년층 고용시장의 현황 제시, 우리나라 청년 고용 정책의 시사점 도출

■ **주요내용**

- 중소기업과 청년고용의 현황
- 청년 노동공급의 실증분석
- 국내외 중소기업 청년고용정책 검토
- 실증분석 결과 및 국내외 청년고용정책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 고용장려금의 급속한 사업확대는 중소기업 청년고용 관련 중요한 정책적 시도임
  - 고학력 청년층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높은 경제성장이 중요함
  - 청년층의 고용개선은 단기정책보다 산업기술인력 등 혁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고령화와 고용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연구자 : 한동숙

■ **목적**

- 한국은 OECD 국가 중 50~75세 근로자의 노동참여율은 높은 편이나, 해당 연령층의 빈곤율이 타 OECD 국가에 비하여 높음. 앞으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임금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용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함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 고령 근로자의 빈곤율, 고용가능성, 고용 유지도 개선
  - 우리나라 고령 근로자의 사회보호제도 개선 필요
  - 고령 노동자의 고용가능성과 근로조건 개선
  - 고령 근로자의 고용과 고용유지도(Job Retention) 개선
- 우리나라 고령층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
  -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혜택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직무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
  - 고령층 근로자 고용가능성 증진, 고령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기반 제도마련 필요

2019년 02~03월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2019년(1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훈련기관 선정(2.1)
- 2019년 1월, 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2.25)
- 일학습병행 우수훈련 기업 방문(㈜씨엔이지에스, 2.25)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www.hrdkorea.or.kr

- 2019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추가모집(2.18~3.12)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안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3.15)
-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및 면접관 대상 블라인드 채용 상설교육 운영 기관 모집(~3.19)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무직 직원 채용 공고(3.11~20)
- 2019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3.21)
- 2019년 NCS 청년 서포터즈 모집(3.11~24)
- 2019년도 상반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규모집 공고(접수기간: 3.11~29)
  - 사업설명회 개최(3.25)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ww.keis.or.kr

- 2019년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참여(3.20~21)
- 2019년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여(3.21~22)
- 고용정보원·병무청 MOU(3.19, 병무청)
  - 입대 전 병역진로설계 지원 및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 국군장병 온라인 상담 시범 시행(3.11~22)
  - 부대 내 개인 스마트폰 사용 현역 장병 대상 온라인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제공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www.kopo.ac.kr

-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3.8)
- 2019년 신규 초빙교원 직무교육 실시(3.12)
- 2019년 정책과제 연구 심의위원회 개최(3.19)
- 2019년 듀얼공동훈련센터 운영 및 성과향상을 위한 센터장 회의(3.2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www.koreatech.ac.kr

- 코리아텍 학위수여식 개최(2.20)
- 2019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2.25~27)
- 일학습병행대학 1기 졸업식 개최(2.20)
- 온라인평생교육원 2019 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2.21)
-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러닝 팩토리 개관식(3.15)
- 제9대 신임 총장 취임(3월 중)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 2019년 훈련기관인증평가 기관건전성 평가 결과발표(3월 중순)
- 2019년 1차 재직자 원격훈련심사 최종결과 발표(3.27)
- 2019년 1차 실업자 원격훈련 심사접수(3.4~11)
-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선정기관 및 관할 고용센터 간담회(3.13)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현장평가 실시(2.27~3.15)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실시(3.20~4.19)
- 2019년도 훈련이수자평가 3차 신청(3.4~11)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ww.krivet.re.kr

- NCS 기반 교육과정 지원 사업 보고회(2.13)
- 2019년 NCS 학습모듈 개발을 위한 적합성 검토협의회(2.21~22)
- 2019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추진 설명회(2.26)
- 2019년 제1차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협의회(2.28)
- 대학 진로탐색캠프 업무담당자 1차 워크숍(3.8)
- 2019년 민간자격 부처 지도·점검 연수(3.19)
- 전국 시도교육청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 업무담당자 워크숍(3.19~20)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지원 워크숍(3.20)
- 2019년도 NCS학습모듈 운영위원회(3.22)
-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커뮤니티 대표단 협의회(3월 중)
- 2019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사업관리단 협의회(3월 중)
- 2019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사전 컨설팅단 워크숍(3월 중)

[참가신청]

환경노동위원회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국회 토론회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안과 과제

일시 | 2019년 3월 15일(금)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의원
임이자 의원
김동철 의원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프로그램

10:00~10:30	**| 개회식 |**
10:30~10:50	**|** (발제1) **일자리 환경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현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영섭** 선임연구위원
10:50~11:10	**|** (발제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자리 창출 지원 역할 과제 |** 경기대학교 **강순희** 교수
11:10~12:00	**| 종합토론 |** (좌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우영** 교수
12:00	**| 폐 회 |**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신분증 필수 지참)

신청안내

모집인원 100명/선착순마감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 게시글 참고, 신청서 작성후 메일(**dhkim@hrdkorea.or.kr**) 송부

신청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 (052-714-8039)